

### - 대구시 2013년 일자리창출 목표 사례

구 분		2013년	구군합계
공통목표	고용률(%)	58.3%	
	취업자 수(명)	1,211,000	
개별목표	총 계		75,225 54,871*
	형태	계	72,720 50,269*
		상용	12,526 6,797#
	부문	임시	60,194 27,157#
		민간	
		공공	8,388 5,118#
	직업훈련(개)	중앙	26,817 28,836%
		지방	37,515
	Job 미스매치 해소(개)	1,075	
	고용인프라 구축(개)	230	
		1,200	

\* 일부 구의 경우 전체일자리와 일자리창출부문이 미구분,

#% 수성구와 남구 목표치 미제시로 제외, % 중앙지방 합계한 정부부문

- 기존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는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일자리창출만 평가대상이었으나, 고용률지표에서는 관내 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지자체의 관여여부 불문하고 모든 주민의 취업 창업 일자리 유지 해고 등 문제에서의 관심도 제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
- 일자는 지역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유지 소멸되고 있기에 지역별 고용률 70% 달성이 중요
- -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, 지역 현장에서의 분위기 조성 및 실행여부 확인.
- - 각 시군구의 고용률 70% 달성 -> 광역지자체별 고용률 70% 달성 -> 국가 고용률 70% 목표 달성 가능
- 고용률 70%라는 수치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일자의 질보다 양에 치우칠 가능성 상존
- OECD기준 고용률(15-64세)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일자리사업에서 연령 제한 혹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언의 압력 등 비공식적 차별 가능성

- 로드맵 반영 민선 6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
- 지방정부에서는 민선 6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시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
-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정비
- 단체장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조직, 인력, 예산으로 구체화 필요.
-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업무가 관내의 일자리관련 업무를 관장하므로 조직내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핵심부서로 배치
- 일자리 창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력과 추진력 겸비가 필요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도록 하며 승진 등 인센티브 제공
- - 일자리업무가 기피업무가 되고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영역임에도 전문역량 축적에 한계
-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단은 주무부서로서 승진코스
- 대구광역시수성구 일자리정책사업단 설치 우수공무원 발탁, 1년만에 대통령상 수상 및 다양한 국비 확보
- 칠곡군 전략기획과에서 일자리업무 담당
- - 2년 연속 지역일자리대책 한마당 최우수상

- 대구시 일자리창출본부 구성
  - 팀별 일자리 대책 점검(매월)
  - 본부장 주재 일자리 대책 보고 및 토론(분기별)



- □ 지역주도적 일자리정책 구현과 지역고용거버넌스 작동 계기
- ○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 집행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책을 기획 및 시행하는 능동적인 자세 요구
- ○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은 지방정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와 노사민정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른바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작동으로 문제 해결 노력
- ○ 지역내 다양한 고용주체들을 연계하고 네트워킹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일자리대책의 추진력 발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아이디어 발굴
- ○ 칠곡군 지역고용심의회 구성 및 개최, 지역고용심의 실무위원회 작동
- ○ 경상북도 일자리 100인포럼 노사민정 공동대표 체제(정무부지사, 경북상의협의회장, 경북경총회장, 한국노총 경북본부의장, OO대 교수)
- ○ 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간담회
- - 민간이 참여하는 고용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음.

- □ 지역 산업 인력수급 미スマッチ 해소 방안 마련
- ○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대구지역 5인 이상 기업의 인력 부족인원이 12,314명이고 채용계획 인원이 13,073명에 달함
- ○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고 산업계 수요자 중심의 인력수급 거버넌스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작동
  -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, 경북동부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
  -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체계로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미スマッチ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.
- □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과제
  - 일 가정 양립 및 일 학습 듀얼시스템 정착 유도
  - 자발적 선택에 의한 단시간 근로.
  -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, 시간선택제 공무원(7급이하).
  - 15-24세의 낮은 고용률 이유는 고등학생(의무교육)과 대학생, 군복무에 있기에 이들의 고용률 제고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
    - 20세 혹은 고졸연령부터 계산한 고용률을 적용 계산 및 비교 필요
    -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
    -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여성의 경우 purple job 경험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재현 우려
    - 시간제 근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등 준고정비용의 부담문제

-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산확대
-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금년 500억 원대에서 내년 800억 원대로 증가
-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사전 계획서 작성
- 지역 일자리 사업 발굴 대회 등 지역의 아이디어 대회 개최
  
- 2014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 가능성
-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창출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고 전임자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여부 및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 강화 가능성
  
- 기타
-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기반 및 과학기반 창조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창업 창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
- 기업 주도의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청년층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지속적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

## V. 마무리

- '13년 8월 OECD 기준(15-64세)
- 대구시 고용률은 62.3%, 경북은 67.0%
  
- 자리 중에 가장 좋은 자리는 \_\_\_\_\_ 자리
  
- < 참고문헌 >
- 고용노동부(2012),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매뉴얼
- 관계부처 협동(2013),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로드맵, 고용노동부
- 대구시 및 구군(2013), 2013년 대구시 및 구군 일자리 창출 세부 계획
- 통계청(2013), 2013년 8월 고용동향